



2023년 7월 25일 포스코지킴이어린이집 교사와 원아들이 포스코의 캐릭터인 '포석호'가 그려진 옷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

포스코 “직원도 아이들도 웃음꽃” 상생으로 선한 영향력 전파 ‘눈길’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
대·中소 사업주 함께 설치·운영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 시행

포스코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서 2020년 6월부터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함께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자녀의 비중이 전체 정원의 약 50%를 차지한다. 포스코는 그 이전에는 포항, 광양 주택단지 내 포스코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2개소를 각각 운영해왔으나, 2019년 4월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MOU를 체결하고, 포스코는 물론 그룹사, 협력사 직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했다.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컨소시엄’에는 포항지역 19개 그룹사와 41개 협력사가 참여 중이다. 광양에는 18개 그룹사 및 88개 협력사가 함께 한다.

포스코 본사 옆에 건립한 ‘포스코 동

촌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늘 자연을 느끼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게 2층 높이의 실내정원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실내에서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천장을 두어 어린이집 곳곳에 햇살을 가득 담을 수 있게 했다. 실내정원에는 열대과일 식물을 심어 자연체험학습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 아이들이 책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오픈형 도서관을 배치했으며, 신체놀이활동이 가능한 런닝 트랙을 만들었다. 특히 2022년부터는 포스코 운영 어린이집 최초로 원아민 영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주택단지에서 건립한 ‘포스코 금당어린이집’은 나무를 활용한 숲속 놀이터, 계절별 이벤트가 가능한 옥상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설계했고, 반응형 디지털 모션월을 설치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남향으로 배치된 보육실에서는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끼며 자연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창을 만들었으며, 주변 주택단지의 건물색과 조화를 고려해 밝고 따뜻한 색상의 고

내식 철강재인 포스맥 외장재를 사용했다.

한편 포스코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과 기존 어린이집 외에 2020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 그룹사와 협력사, 입주사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2 어린이집을 새롭게 단장했으며,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2020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24일에 포항 포스코본사에서 포스코 노사대표와 포항 및 광양지역 협력사 노사 대표들이 모여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이 때부터 포스코는 모든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포스코 상생협력 전액 장학금’을 위한 기금 조성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권오갑 “근로자들의 안전이 제일 소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오찬 간담회
업계 최초 사내 ‘외국인지원센터’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조선소 생산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HD현대는 27일 권오갑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울산 HD현대중공업 영빈관으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HD현대중공업 및 HD현대미포의 협력사 등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42명이 참석했으며, 권오갑 회장 외 HD현대중공업 이상근·노진율 사장, HD현대미포 김형관 사장 등 HD현대의 조선 계열사 최고 경영진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오갑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위로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활 및 행정 전반에 걸친 통역 지원과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어 교



육 등 회사의 다양한 지원책 덕분에 적응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업계 최초로 사내에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8개국어를 구사하는 통역 지원 인력을 상주시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통을 돕고 있다. 한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종교적 이유로 특정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맞춤형 글로벌 식단도 제공한다.

또 현지어로 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배포하고, 법정교육 외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권오갑 회장은 “회사는 여러분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 건강하게 금의환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글로벌비스, 글로벌 가스운송 항로 넓힌다

초대형 가스운반선 2척 도입

현대글로벌비스가 글로벌 가스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 이를 위해 신조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2척을 도입한다.

이와 관련 현대글로벌비스는 26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첫번째 자체보유 가스운반선(VLGC)인 ‘태백 익스플로러’호의 명명식을 열었다. 또한 ‘소백 익스플로러’호로 명명된 두번째 가스운반선은 같은 선형의 쌍둥이 선박으로 올해 중순 해상운송에 투입 예정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2척을 도입해 글로벌 가스 운송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26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태백 익스

플로러’호의 명명식을 열었다. 태백 익스플로러호는 현대글로벌비스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된 첫 번째 가스 운반선이다. 쌍둥이 선박인 ‘소백 익스플로러’호는 올해 중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선박은 8만6천㎥의 액화석유가스(LPG)를 선적할 수 있는 초대형 가스 운반선이다. 이는 2023년 집계 기준 국내 가정·산업에서 약 10일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화물창이 특수 재질로 제작돼 LPG뿐 아니라 암모니아도 운송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암모니아를 선적할 수 있는 가스 운반선은 50여척 내외로, 전체 선대의 약 10% 수준이다.

이들 선박에는 LPG 이중연료 엔진과 축 발전기가 설치돼있어 연료 효율도 높다.

/양성운 기자

SKT·LGU+, 6GB 데이터 3만원대로 제공

SKT, 6GB 데이터 제공 ‘컴팩트’
2만원대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선보
LGU+, 5GB 제공하는 ‘5G 미니’
KT와 가격 같지만 데이터 1GB ↑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28일부터 월 3만9000원에 6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컴팩트’ 5G 요금제와 2만원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충전도 가능하다. 컴팩트 요금제의 경우 월 3000원에 1GB의 추가 데이터를 1회에 한해 충전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월 3만7000원에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미니’ 요금제를 이날 선보인다. 마찬가지로 기

본 데이터 소진 시 최대 400kbps로 계속 이용 가능하다. 다만, KT의 3만원대 5G 요금제와 가격은 같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1GB 더 많다.

이밖에도 SKT와 LG유플러스는 중저가 요금제도 개편했다.

SKT 34세 이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0청년 37(월 3만7000원·6GB)’ 요금제를 출시한다. 아울러 월 4만 5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컴팩트플러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해당 요금제 이용 고객은 데이터를 다 사용한 후에도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의 경우 5G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를 2만원대로 낮췄다. 온라인에서는 월 2만7000원에 6GB를 주는 ‘다이렉트 5G 27’과 월 3만 1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다이렉트 5G 31’을 출시했다. ‘다이렉트 5G 27’은 월 3만9000원 ‘컴팩트’ 요금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월 요금은 30%가량 저렴하다.

LG유플러스는 5만원대 요금제를 세분화시킨 ‘5G 베이직+’을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월 5만9000원에 24GB의 데이터가 기본 제공되며, 소진 시 최대 1Mbps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가입자를 위한 데이터 혜택도 확대했다. 지난해 일반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50% 많은 ‘유쓰 5G 요금제’ 가입 대상을 기존 19~29세에서 19~34세로 변경한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 담당은 “5G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이용 패턴을 반영한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와 실질적인 혜택을 고려한 합리적인 5G 요금제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CJ올리브네트웍스, AI기술력 등 뽐낸다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 참가

CJ올리브네트웍스가 2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Automation World 2024)’에 참가했다.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은 스마트팩토리, 공장 자동화, 머신비전 등 최신 제조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산업 전시회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디지털전환(DX)을 위한 제조물류 기술과 인공지능(AI)서비스를 소개한다. 부스는 크게 ▲스마트제조(Smart Factory) ▲스마트물류 및 자동화설비(Smart Logistics and Automation) ▲AI 기반 스마트 제조물류 서비스 ▲고객 DX 혁신 사례 및 파트너 등 4개의 메인 존을 구성해 전시 운영한다.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CJ올리브네트웍스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산업전을 통해 선보이는 당사의 차별화된 제조물류 솔루션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에게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